



HEIDELBERG

## (주)삼화인쇄, 고스 M-600 운전기 투자 결정 고품질인쇄 · 생산성 향상 두 마리 토끼 한번에 뛰어난 자동화와 콘트롤 시스템 자랑

(주)삼화인쇄(대표 유성근)는 최근 고품질인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스 M-600 상업운전기 도입을 확정했다. 고스 상업운전기는 자동 판 교환 장치와 옴니콘 인쇄 콘트롤 센터로 손지울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으며, 인쇄작업 처음부터 끝까지 고품질을 유지한다.

자료 제공 | 한국하이델베르크

(주)삼화인쇄(대표 유성근)는 최근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최상의 운전 인쇄 품질을 올리기 위해 새로운 16페이지 고스 M-600 상업운전기 투자를 확정했다. 운전기는 8월에 설치할 예정이다.

삼화인쇄는 M-600 투자를 최종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뛰어난 자동화와 인쇄기 콘트롤 기능을 꼽았다. 고스 자동 판 교환 장치와 옴니콘 인쇄 콘트롤 센터로 손지울이 크게 낮아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삼화인쇄 손난수 이사는 “한국의 인쇄 품질에 대한 기대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삼화인쇄는 최상의 시스템에 투자해 인쇄 작업 시간과 손지에 따른 비용을 줄이면서도 고품질 인쇄물을 고객에게 보장하기 위해 M-600 운전기를 도입하게 됐다. M-600 운전기는 시장에서 이미 최고임이 인정됐고, 가장 짧은 작업준비 시간에 최상의 품질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쇄 작업 처음부터 끝까지 고품질인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운전기인 16-페이지 고스 M-600 운전기는 출시 이후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선돼 고품질인쇄와 낮은 손지로 그 위치를 견고히 유지하고 있다. (주)삼화인쇄에 설치될 M-600 운전기 최신 버전은 더욱 향상된 자동 판 교환 시스템, 워크플로, 작업 준비 시간 단축과 손지 발생을 줄여주는 사전 세팅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고스 인터내셔널의 상업 운전 담당 부사장인 팀 머씨는 “삼화인쇄는 꾸준한 투자로 오랜 기간 동안 안정되고 활기차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상의 회사라고 생각한다. 삼화인쇄가 적기에 적절한 판단을 통해 운전기를 도입하는 만큼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고품질인쇄의 명성과 고객의 완벽한 만족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최신의 투자는 고객 유지, 최소의 손지 발생, 기계 가동 시간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삼화인쇄 6번째 운전기 도입... 작업량 늘고 비용절감 기대

1954년에 설립돼 300여명의 직원이 있는 삼화인쇄는 출판, 언론사에서 정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넓은 고객층을 갖고 있다. 고품질 상업 잡지, 아트 카탈로그, 달력과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작업하고 있는 인쇄물이 매우 다양하며 오랜 경험을 통해 인쇄물에 따라 올바른 기술을 선택해 적용하는 데 능숙하다. 이미 5대의 운전기와 11대의 매엽 인쇄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번 6번째 운전기 도입을 통해 작업량을 늘리고 비용을 더욱 절약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